

KIA, 부상 주전들 돌아온다…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KIA, 2025 시즌 전반기 결산·전망 <하>

이의리·나성범·김선빈 등 회복
김도영 훈련 소화 8월께 복귀
‘분위기 전환’ 반등 기대감 고조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주전 자원들이 대거 복귀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 회복에 나선다. 상반기 동안 공백을 버텨낸 대체 선수들과의 시너지가 더해지며 상위권 경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우선 이의리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마운드로 복귀한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2021년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데뷔 첫해부터 1군 선발진에 안착하며 통산 26

승 22패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한 토종 좌완 에이스다. 강속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로 상대 타자를 압도해 2022~202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고,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 초반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1년 넘게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팬들 사이에선 “이의리가 없으면 챔피언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크다. 다행히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달 두산과의 2군 경기에서 최고 시속 151km를 기록한 그는 3경기 8.1이닝 동안 자책점 1.08, 탈삼진 14개라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남기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타선의 핵심들도 속속 복귀 중이다. 나성범은 지난 4월 경기 도중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최근 퓨처스리그 복귀전에서 4타수 2안타 1홈런 1볼넷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회복 중이다. 전반기 타율 0.226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통산 타율 0.312에 276홈런을 자랑

하는 리그 대표 장타자다. 무엇보다 나성범 특유의 리더십과 클러치 능력은 승부처에서 빛을 발한다.

내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김선빈도 복귀 준비를 마쳤다. 올 시즌만 세 차례 종아리 부상에 시달린 그는 입안이 찢어지는 충돌 사고까지 겪으며 험난한 상반기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타율 0.292로 고군분투했고, 최근 2군 경기에서는 멀티 히트에 2볼넷을 곁들이며 정교한 타격을 예고했다. 2루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 ‘출루-연결-득점’의 축을 담당하는 김선빈의 복귀는 팀 전체 밸런스를 되살릴 수 있는 변수다.

그리고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김도영이다. 올 시즌 초반 KIA 타선을 이끈 ‘타이거즈의 미래’는 좌우 햄스트링 부상을 연달아 당하며 전반기를 사실상 통째로 쉬었다. 하지만 최근 재활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합병 훈련장에서 전력질주와 수비 훈련까지 소화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8월 중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태가 무척 좋다”고 밝혔다. 김도영은 올 시즌 초 0.313의 타율에 5홈런, 13도루를 기록하며 리드오프로서 존재

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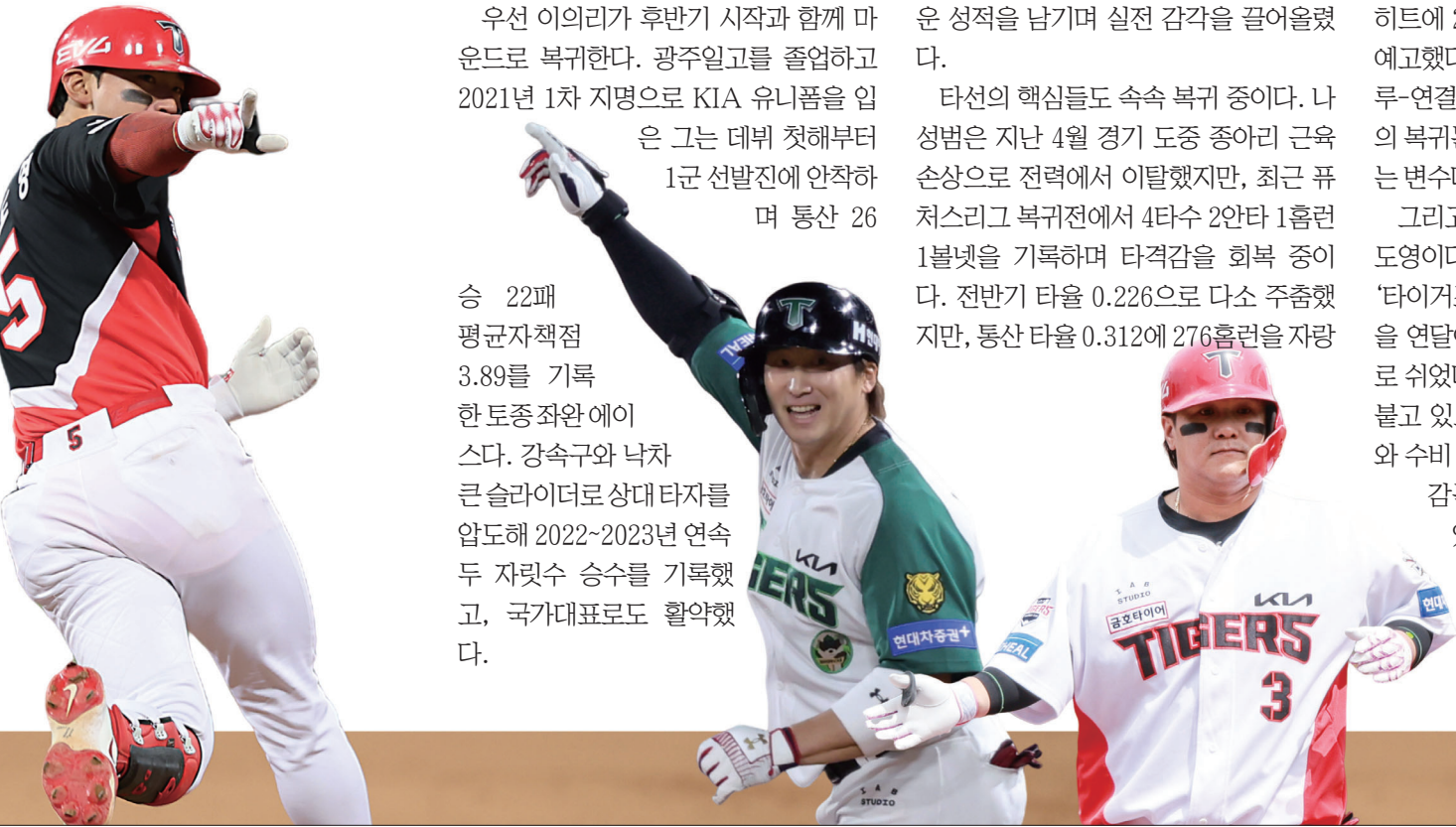
이처럼 투타의 핵심 전력이 하나둘씩 가세하면서, KIA는 후반기 완전히 달라진 전력을 갖춘 전망이다. 대체 선수들이 전반기 동안 잘 버텨주며 5할 근처에서 순위를 지켜낸 상황에서, 주전 복귀는 단순한 보강을 넘어 ‘분위기 전환’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범호 감독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제자리에 돌아온 선수들과 함께 진짜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부터 KIA는 이의리·양현종·내일로 이어지는 토종·외인 원투스리 펀치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김도영·김선빈·박찬호로 이어지는 내야진도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최형우·나성범·위즈덤으로 구성되는 중심타선의 무게감도 살아난다면, 후반기 KIA는 ‘디펜딩 챔피언’에 어울리는 모습을 되찾게 된다.

‘부상 병동’의 그림자가 겹치고 있다. 전반기 버텨낸 뒷심과 복귀한 전력의 조화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후반기 KIA의 반등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부상에서 복귀하는 KIA 김도영(왼쪽부터), 나성범, 김선빈.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최종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이호재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

동아시아컵 0-1 패… 준우승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패하며 ‘동아시아 챔피언’ 타이틀을 안방에서 내줬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전반 8분만에 허용한 실점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한국은 2승 1패(승점 6)로 3전 전승(승점 9)을 거둔 일본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6년 만의 우승과 통산 6번째 정상에 노렸지만, 끝내 고개를 숙였다.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2022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며 통산 우승 횟수를 3회로 늘렸다.

특히 이날 패배로 한국은 한일전 3연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나고야 동아시안컵에 이어 3경기 연속 일본에 무득점

으로 졌다. 이는 역대 한일전 사상 첫 3연패 기록이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일본에 승리한 것은 2019년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경기(1-0)였다. 전체 상대 전적에서는 42승 23무 17패로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2승 3무 5패로 열세다.

지난해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는 월드컵 3차 예선(6승 4무)부터 이번 대회 2차전까지 1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 이날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했다.

전반 7분 나상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일본의 선제골이 터졌다. 미야시로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저메인이 원발 발리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5번째 골로 득점 선두를 지킨 장면이었다.

한편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중국이 홍콩을 1-0으로 꺾고 대회 3위를 차지했다.

김성수 기자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수원삼성 상대로 홈 3연승 도전

19일 오후 7시 광양서 21라운드 리그 최소실점 수비진·공격진 복귀 상위권 판도 흔들 ‘분수령’ 주목



전남드래곤즈가 홈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2025 K리그2 21라운드 홈경기에서 수원 삼성블루윙즈와 격돌한다.

전남은 이날 승리할 경우 2위 수원과의 승점 차를 단 1점으로 좁힐 수 있어 ‘분수령 경기’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은 최근 홈 2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2-1), 경남FC(1-0)를 차례로 꺾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OK 웃맨 럭비단, ‘럭비 아카데미’로 꿈나무 육성 나선다

내달 29일부터 중학생 선수 대상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한 OK 웃맨 럭비단이 한국 럭비 유망주 육성에 발 벗고 나선다.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은 오는 8월 29~31일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전국 중학교 럭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OK 웃맨 럭비 아카데미(이하 럭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신청 접수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희망 학교 담당자 및 지도자가 학교 명과 참가 인원, 참가자 명단을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웃맨 럭비단 공식 SNS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okrugby@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오영길 감독을 비

롯한 코칭스태프와 현역 선수들이 직접 교육에 나선다. 기본 기술 훈련부터 실전 전술, 컨디션닝, 부상 예방, 럭비 규칙 이해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럭비 고유의 정신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 후 악수를 나누며 상대를 존중하는 ‘노사이드 정신’과 함께 희생, 인내, 협동이라는 럭비의 핵심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재일조선인학교 오사카조선고 럭비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60만 번의 트라이’ 상영과 함께 실제 주인공이자 감독인 오영길 감독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최운 OK금융그룹 회장은 “럭비 아카데미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자신만의 럭비 철학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미래 한국 럭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길 감독은 “꿈을 향한 투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경쟁보다 성장을, 체벌보다 즐거움을 지향하는 럭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비인기종목으로 여겨졌던 럭비의 교육적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한국 럭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운 OK금융그룹 회장은 “럭비 아카데미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자신만의 럭비 철학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미래 한국 럭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길 감독은 “꿈을 향한 투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경쟁보다 성장을, 체벌보다 즐거움을 지향하는 럭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비인기종목으로 여겨졌던 럭비의 교육적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한국 럭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운 OK금융그룹 회장은 “럭비 아카데미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자신만의 럭비 철학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미래 한국 럭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길 감독은 “꿈을 향한 투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경쟁보다 성장을, 체벌보다 즐거움을 지향하는 럭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운 OK금융그룹 회장은 “럭비 아카데미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자신만의 럭비 철학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미래 한국 럭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시장에서는 르본(아테네 칼리테아), 김주엽(수원FC)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하고, 최한솔(강원FC), 박상준(울산HD)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 옵션을 다변화했다.

상대 수원도 만만치 않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공격진 일류첸코, 파울리노, 브루노 실바, 세라핌 등과 김지현을 앞세워 리그 최다득점 1위(41득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수비는 24실점으로 허점이 드러나 있는 만큼, 전남이 이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방패’ 전남과 ‘창’ 수원의 맞대결, 그리고 홈 3연승을 노리는 전남의 이번 경기는 상위권 판도를 뒤엎을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최동환 기자